

2023년 9-1

KIET 경제·산업동향

2023년 9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엔화 환율 변동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3년 8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일본 2분기 성장률 1.2%, 유로존 경제 0.1% 성장률 기록

- 미국은 7월 실물지표들의 증가세 확대와 체감·선행지수 약세 등으로 인한 경제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2분기 성장률이 투자 확대에 힘입어 2.1%로 상승
- 일본은 2분기중 내수 약세에도 순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22년 2분기 이후 최고치 수준인 전기비 1.2%를 기록하고, 유로존은 역대 최대국인 독일의 성장 정체에도 프랑스의 성장 확대(0.5%) 등으로 0.1% 성장
- 중국은 지난 7월 내·외수 지표들의 부진세가 이어진 가운데 2분기 성장률 부진과 디플레 우려 등으로 인해 인민은행이 단기금리를 2개월 만에 전격 인하
- 달러화는 8월에 美 신용등급 강등과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계감 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9월 들어서도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가 높아지면서 강세 지속
- 유가는 8월중 글로벌 원유 수요 불안과 美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세와 사우디의 감산 연장(~연말) 등으로 상승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7%, 소비·투자 동반 감소 전환

- 7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생산 증가세(전월비 0.4%)가 이어지고 있으나, 광공업에서 생산 감소폭이 확대(-2.0%)되면서 3개월 만에 감소(-0.7%)
 - 소매판매는 내구재(-5.1%) 등의 판매가 감소한 여파로 3.2%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3.6%)와 운송장비(-22.4%) 등의 감소 여파로 8.9% 감소

□ 금 융 : 7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9월 초순(9월 1일 ~ 11일) 금리 상승 및 원/달러 재상승

- 7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계절요인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수준을 거의 유지한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8월에 美 신용등급 하향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9월 초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의 급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로 상승 지속
- 원/달러 환율은 8월중 中 부동산 우려 재점화 및 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등으로 급등락한 이후, 9월 들어 中 위안화 약세와 함께 1,330원대로 재상승

□ 산업별 동향 : 7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8.1%, 서비스업생산 +1.9%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에, 전자부품, 반도체, 기계장비, 섬유제품,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8.1% 감소
 - 제조업ICT와 중공업과 경공업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감소폭이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 도소매,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하면서 1.9% 증가

□ 고용 : 7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0.7% 증가

- 지난 7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동반 확대된 가운데 SOC·기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하락(1.2% → 0.7%,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

□ 수출입 : 8월 수출 -8.4%, 수입 -22.8%, 무역수지 9억 달러 흑자

- 지난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8.4% 감소한 519억 달러, 수입도 22.8% 감소한 510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9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하계 휴가 등 계절적 요인과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들의 단가 하락에도 자동차·선박·기계·가전·디스플레이 등 6개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미국·EU·중동 등지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데다, 對중국 수출 감소세도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감소폭이 축소(-16.4% → -8.4%)

1. 해외경제

□ 미국 : 7월 실물지표 강세, 2분기 성장률 2.1%로 견조한 성장세 지속

○ 7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증가세가 동반 확대된 반면, 체감지표들의 혼조와 선행지수 하락 등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여전히 혼조. 2분기 소비 둔화에도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대 성장률로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 산업생산은 제조업(전월비 0.5%)을 비롯해 광업(0.5%)과 유틸리티(5.4%) 등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증가(1.0%)하고, 소매판매는 온라인 할인행사에 따른 판매(1.9%) 호조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0.7%)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여전히 기준치(50)를 밑도는 수준이나, 3개월 만에 소폭 상승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60.0)와 미래 기대지수(88.3)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117.0)
-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세가 소폭(전월비 18.7만 개)임에도 실업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4월부터 16개월 연속 하락세
- 美 경제가 2분기 소비 둔화(전기비 1.7%)에도 투자 확대(7.7%)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전년동기비 2.5%, 2022년 1분기 이후 최고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9	2.1	2.6 (0.9)	2.0 (1.8)	2.1 (2.5)				
산업생산 (IT생산)	4.4 (9.7)	3.4 (2.4)	-0.6 (-0.3)	-0.1 (-1.4)	0.0 (4.1)	0.5 (2.2)	-0.4 (0.4)	-0.8 (2.1)	1.0 (1.5)
내구재수주	18.4	8.3	0.5	-0.1	5.4	1.2	2.0	4.4	-5.2
소매판매	18.2	9.7	0.1	1.1	0.0	0.4	0.7	0.3	0.7
소비자물가	4.7	8.0	1.0	0.9	0.7	0.4	0.1	0.2	0.2
실업률(%)	5.4	3.6	3.6	3.5	3.6	3.4	3.7	3.6	3.5
무역수지(10억US\$)	-841.6	-951.2	-213.5	-201.8	-203.5	-73.0	-66.8	-63.7	-65.0
ISM 제조업지수 ¹⁾	60.6	53.5	49.2	47.1	46.7	47.1	46.9	46.0	46.4
소비자신뢰지수 ²⁾	112.0	104.5	104.2	104.5	105.4	103.7	102.5	110.1	117.0
경기선행지수 ³⁾	113.8	114.8	111.6	109.4	106.9	107.6	106.9	106.2	105.8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6월 실물지표 혼조, 2분기 순수출 확대로 실질GDP 1.2% 성장

- 6월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수입의 대폭 감소(-12.8%) 여파로 무역수지가 2년여 만에 흑자를 기록. 지난 2분기 중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에 따른 순수출 확대 등의 영향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22년 2분기 이후 최고치인 1.2%를 기록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1.0	0.1	0.8	1.2				
광공업생산	5.8	0.0	-1.7	-1.8	1.4	0.3	0.7	-2.2	2.4
민간기계수주	6.0	5.5	-4.7	2.6	-3.2	-3.9	5.5	-7.6	2.7
소매판매	2.0	2.6	1.2	2.5	0.5	0.3	-1.1	1.4	-0.6
소비자물가	-0.2	2.5	1.1	0.5	0.7	0.3	0.6	0.0	0.2
실업률(%)	2.8	2.6	2.5	2.6	2.6	2.8	2.6	2.6	2.5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5,662	-5,185	-1,775	-759	-436	-1,382	43
경기선행지수 ¹⁾	114.3	112.0	109.7	108.3	108.7	108.0	108.1	109.1	108.9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7월 내·외수 지표 부진세, 인민은행 단기금리 2개월 만에 인하

- 7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동반 둔화세를 보이고, 수출도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등 내·외수 약세가 지속.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6.3%에 그치고, 디플레이(물가 하락) 우려도 제기되면서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단기금리를 2개월 만에 인하(3.45%, 8.21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2.9	4.5	6.3				
산업생산	9.3	3.4	2.8	3.2	4.5	5.6	3.5	4.4	3.7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5.1	5.1	3.8	4.7	4.0	3.8	3.4
소매판매	12.4	-0.8	-2.7	7.1	11.4	18.4	12.7	3.1	2.5
소비자물가	0.9	2.0	1.8	1.3	0.1	0.1	0.2	0.0	-0.3
수출(달러화기준)	29.6	6.3	-7.6	-1.5	-4.7	7.3	-7.1	-12.4	-14.5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6월 실물지표 혼조, 2분기 역대 실질GDP 성장률 0.1% 기록

- 6월 생산과 소비 등 역대 실물지표들의 혼조세와 인플레이 둔화 속에 경제체감 지수의 하락세가 지속. 2분기중 역대 최대국인 독일의 성장 정체에도 프랑스의 성장 확대(0.5%)와 스페인의 성장 지속(0.4%) 등에 힘입어 0.1% 성장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3	3.5	-0.1	0.1	0.1				
산업생산	8.8	2.2	-0.5	-0.3	-1.0	-4.4	1.2	0.0	0.5
소매판매	5.1	0.9	-1.0	-0.2	0.0	-0.4	0.0	0.6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10.0	8.0	6.2	6.9	7.0	6.1	5.5
무역수지(10억유로)	98.3	-343.4	-62.8	-0.5	4.8	12.2	-7.9	0.2	12.5
경제체감지수 ¹⁾	110.7	101.9	95.3	99.2	96.9	98.8	98.9	96.4	95.3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 유가 상승 지속

- 달러화는 8월에 주요 신평社들의 美 신용등급 강등과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계감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9월 들어서도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로 美 국채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강세 지속
- 유가는 8월중 美 신용등급 강등과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원유 수요 불안과 美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세와 사우디의 감산 시한 연장(~연말), OPEC의 증산 부재 등으로 상승세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2	2023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11일
엔/달러	131.12	130.09	136.17	132.86	136.30	139.34	144.31	142.29	145.54	146.59
달러/유로	1.0705	1.0863	1.0576	1.0839	1.1019	1.0689	1.0909	1.0997	1.0843	1.0750
미 국채(10년만기)	3.87	3.51	3.92	3.47	3.42	3.64	3.84	3.96	4.11	4.29
WTI유	80.3	78.9	77.1	75.7	76.8	68.1	70.6	81.8	83.6	87.3
두바이유	78.7	79.3	81.3	76.8	78.9	72.1	76.1	85.6	87.2	92.5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7%, 소비·투자 동반 감소 전환

○ 7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생산 증가세(전월비 0.4%)가 이어지고 있으나, 광공업에서 생산 감소폭이 확대(-2.0%)되면서 3개월 만에 감소(-0.7%)

-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11.2%), 기계장비(-7.1%), 섬유제품(-4.5%) 등에서 감소한 여파로 전월비 2.0%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0.6%) 등 감소에도 정보통신업(3.2%)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증가(0.4%)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GDP성장률	4.3	2.6*	1.4* (-0.3*)	0.9* (0.3*)	0.9**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6	4.1*	3.3* (-0.5*)	4.6* (0.6*)	1.5** (-0.1**)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3	-0.9*	6.5* (2.4*)	5.9* (-5.0*)	3.9** (-0.2**)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2.8*	-1.8* (1.3*)	1.9* (1.3*)	2.2** (-0.3**)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9 (-1.4)	1.2 (0.7)	-0.5* (0.3*)	-1.0 (-1.3)	-1.4 (0.7)	0.7* (0.0*)	-1.4* (-0.7*)
광공업생산지수	8.2	1.4	-6.4 (-6.1)	-9.7 (-0.9)	-7.5* (3.1*)	-9.1 (-0.7)	-7.6 (3.1)	-5.9* (-1.5*)	-8.0* (-2.0*)
제조업생산지수	8.4	1.4	-6.7 (-6.4)	-10.0 (-0.9)	-7.8* (3.3*)	-9.3 (-0.7)	-7.8 (3.0)	-6.2* (-1.6*)	-8.1* (-2.0*)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5.8 (0.2)	6.4 (1.2)	2.3* (-0.4*)	2.9 (-0.4)	1.2 (-0.9)	3.0* (0.5*)	1.9* (0.4*)
소매판매액지수	5.8	-0.3	-2.3 (-1.4)	-0.4 (1.1)	-0.2* (-0.3*)	-1.4 (-2.6)	-0.6 (0.6)	1.5* (0.9*)	-1.7* (-3.2*)
설비투자지수	9.6	3.3	9.6 (-0.2)	-0.5 (-8.8)	-1.2* (1.3*)	4.2 (0.8)	-4.9 (3.1)	-2.4* (-1.1*)	-11.0* (-8.9*)
건설기성액	-6.7	2.7	6.4 (4.9)	11.5 (4.6)	9.0* (-0.7*)	12.4 (1.2)	5.7 (0.7)	9.1* (-2.0*)	10.8* (0.8*)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7	108.2	108.9	108.8	110.2*	110.0	110.3*	110.3*	1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4	100.9	100.5	99.7	100.2*	100.3	100.3*	100.1*	99.6*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6	109.4	109.9*	109.4	109.8*	110.5*	111.1*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4	100.3	100.0	99.0	98.7*	98.5	98.6*	98.9*	99.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전월비 -5.1%) 판매가 상당폭 감소한 데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1%)와 의복 등 준내구재(-3.6%) 등의 판매도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기준 3개월 만에 감소 전환(-3.2%)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3.6%)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22.4%)에서 동반 감소한 여파로 인해 전월비 감소폭이 확대(-8.9%)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3.5%) 공사의 약세에도 건축(2.0%) 공사 호조에 소폭 증가(0.8%)
- 동행종합지수가 수입액과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등의 동반 감소 영향으로 6개월 만에 하락(전월비 -0.3%)한 반면에,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을 제외하고 재고순환지표와 코스피지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등에서 동반 상승한 데 힘입어 3개월 연속 상승(0.5%)

□ 물가 : 8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1.0%, 전년동월비 +3.4%

- 8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2.9%)와 교통(3.8%)을 비롯해서 음식·숙박(0.3%),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함에 따라 전월비 1.0% 상승(전년동월비 3.4%, 2023년 1월 이후 처음 상승폭 확대)
- 7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이 큰 폭 상승(전월비 -1.3% → 4.7%)하고, 공산품(-0.7% → 0.1%) 가격도 3개월 만에 상승한 데다, 서비스(0.1% → 0.3%)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전월비 기준 0.3% 상승(전년동월비 -0.2%)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물가	2.5	5.1	5.3 (0.4)	4.7 (1.1)	3.2 (0.6)	4.2 (0.2)	3.7 (0.2)	3.3 (0.3)	2.7 (0.0)	2.3 (0.1)	3.4 (1.0)
근원물가	1.8	4.1	4.8 (1.2)	4.9 (1.3)	4.3 (0.9)	4.8 (0.2)	4.6 (0.4)	4.3 (0.4)	4.1 (0.2)	3.9 (-0.1)	3.9 (0.2)
생산자물가	6.4	8.4	6.5 (0.1)	4.4 (0.1)	0.6* (-0.3*)	3.3 (0.1)	1.6 (-0.1)	0.5 (-0.4)	-0.3* (-0.2*)	-0.2* (0.3*)	-
근원물가	6.0	6.4	4.0 (-0.2)	2.6 (0.3)	0.3* (0.1*)	1.9 (0.2)	1.0 (0.2)	0.1 (-0.3)	-0.4* (-0.3*)	-0.3* (0.1*)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7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 지난 7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계절요인과 은행들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
(2023년 6월 +5.5조원 → 7월 +8.7조원, 대기업 +3.8조원, 중소기업 +4.9조원)
 - 대기업 대출이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과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확대
 - 중소기업 대출도 일부 은행들의 대출 확대와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7. 25일) 관련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
- 회사채는 기업들의 만기 상환 등으로 순상환 기조가 지속
(2023년 6월 -0.8조원 → 7월 -1.1조원)
- CP·단기사채는 기업들의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 기조로 전환
(2023년 6월 -0.5조원 → 7월 +0.6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좀 더 확대
(2023년 6월 +0.4조원 → 7월 +0.6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7월말 잔액
	1~7월	7월	1~7월	7월	1~7월	5월	6월	7월	
■은행 원화대출	57.2	11.3	71.8	12.2	48.4	7.8	5.5	8.7	1,218.7
(대 기 업)	3.4	2.3	20.4	5.3	20.3	3.4	2.4	3.8	236.2
(중소기업)	53.7	9.1	51.5	6.8	28.1	4.4	3.1	4.9	982.5
〈개인사업자〉	23.7	4.2	16.1	2.0	5.0	0.8	0.2	1.5	447.7
■회사채 순발행	15.1	1.5	-1.8	-1.5	4.0	-2.9	-0.8	-1.1	..
■CP 순발행	8.9	0.9	12.5	1.2	3.0	-3.7	-0.5	0.6	59.5
■주식발행	16.5	1.8	19.6	0.7	3.1	0.3	0.4	0.6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 7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기타대출도 전월 수준을 거의 유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2023년 6월 +5.8조원 → 7월 +6.0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월에 이어 상당폭 증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6월 +6.9조원 → 7월 +6.0조원)
- 기타대출은 고금리 기조와 분기말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축소
(2023년 6월 -1.2조원 → 7월 -0.01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7월말 잔액
	1~7월	7월	1~7월	7월	1~7월	5월	6월	7월	
은행 가계대출	51.3	9.7	-0.2	-0.3	10.1	4.2	5.8	6.0	1,068.1
■주택담보대출	36.4	6.0	12.2	2.0	21.9	4.2	6.9	6.0	820.8
■기타대출	14.8	3.6	-12.5	-2.3	-11.7	-0.05	-1.2	-0.01	246.1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9월 초순(9월 1일 ~ 11일) 금리 상승 & 원/달러 재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8월에 국제신평社들의 美 신용등급 하향과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9월 초에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 강화로 추가 상승세가 지속
(9월 1일 3.689% → 9월 11일 3.865% (3월 2일 이후 최고치), +0.18%p)
- 원/달러 환율은 8월중 美 신용등급 강등과 中 부동산 우려 재점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한 이후에 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등으로 1,320원대로 하락하고, 9월 들어 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와 함께 1,330원대로 재상승
(9월 1일 1,318.8원 → 9월 11일 1,331.1원, +12.3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4/4	1/4	2/4	3/4	4/4	1/4	2/4	8월	9.11일
국고채(3년)	1.80	2.66	3.55	4.19	3.72	3.27	3.66	3.71	3.87
회사채(3년, AA-)	2.42	3.34	4.36	5.28	5.23	4.07	4.47	4.47	4.62
CD(91일)	1.29	1.51	2.04	3.24	3.98	3.59	3.75	3.69	3.72
CP(91일)	1.56	1.66	2.34	3.30	5.28	4.01	4.02	4.03	4.04
원/달러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321.8	1,331.1
원/100엔	1,030.2	992.7	946.5	993.3	953.2	981.4	907.0	905.1	905.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7월중 전년동월비 -8.1%, 전월비 -2.0%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6.2%)와 기타운송장비(12.3%)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19.8%), 반도체(-14.8%), 기계장비(-14.5%), 섬유제품(-10.6%), 화학제품(-7.5%), 1차금속(-6.0%)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8.1%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6.4%)와 중공업(-8.1%), 경공업(-7.7%)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전년동월비 감소폭이 재차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 기타운송장비(0.7) 등을 제외하고, 전자부품(-11.2%)과 반도체(-2.3%), 기계장비(-7.1%), 자동차(-0.2%), 1차금속(-2.4%), 화학제품(-0.9%), 석유정제(-0.5%), 섬유제품(-4.5%) 등에서 감소하면서 2.0%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0.0)는 반도체,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비 2.0%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보합(0.0%)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3.9%로 전월과 달리 11.6%p 상승 전환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7월중 재고 증가폭(4.2% → 5.2%,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확대된 반면, 출하는 재차 감소 전환(2.2% → -5.6%)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2%로 전월보다 1.6%p 하락(2개월 연속 하락세)

□ 서비스업생산 : 7월중 전년동월비 +1.9%, 전월비 +0.4%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1.8%)와 숙박·음식점(-7.2%), 정보통신(-0.8%) 등 업종에서 감소하고, 운수창고(7.3%), 전문·과학·기술서비스(3.4%),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3.2%)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9% 증가

- 전월비로는 운수창고(1.9%)와 정보통신(3.2%), 전문·과학·기술서비스(0.5%) 등 업종에서 증가하고, 도소매(-1.2%), 숙박·음식점(-0.9%),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0.1%) 등 업종에서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소폭 증가세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2.0%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6.1% 감소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8.2	109.7	107.1	99.5	104.7	104.8	107.6	104.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6.4	-9.7	-7.5	-7.6	-5.9	-8.0	-2.0
제조업 (원지수)	9,569.5	108.4	109.9	107.1	98.8	105.2	105.4	108.2	104.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6.7	-10.0	-7.8	-7.8	-6.2	-8.1	-2.0
섬 유	113.4	2.0	-3.5	-10.1	-7.8	-9.1	-10.2	-7.1	-10.6	-4.5
화 학	854.2	8.6	-9.9	-20.1	-20.4	-16.1	-16.6	-10.7	-7.5	-0.9
철 강	496.6	5.2	-8.5	-23.3	-6.5	-2.6	-3.0	-3.2	-5.6	-3.2
반도체	2,023.8	26.8	7.6	-19.8	-33.8	-18.6	-18.7	-15.8	-14.8	-2.3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10.8	0.7	-14.7	-11.5	-12.3	-42.1	-17.3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1.1	17.6	-12.6	-18.4	-16.8	-12.3	6.1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6	5.9	-4.3	-13.4	-17.1	-7.1	-11.9	-3.3
기계, 장비	737.3	12.1	1.1	5.4	0.7	-6.6	-7.3	-8.0	-14.5	-7.1
자동차	987.5	6.3	9.1	17.5	21.6	15.4	18.9	10.8	6.2	-0.2
조 선	66.0	-7.2	20.7	23.4	19.6	4.6	-1.0	7.7	6.2	-3.6
- 중 공 업	-	9.9	1.5	-7.3	-10.7	-7.7	-7.6	-6.1	-8.1	-2.3
- 경 공 업	-	1.3	0.4	-4.0	-5.6	-8.3	-9.2	-6.2	-7.7	-0.2
- 제조업ICT	-	19.3	2.2	-19.7	-30.5	-19.1	-19.3	-15.7	-16.4	-3.8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5.0	112.0	117.9	111.8	115.2	114.1	117.6	114.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0	6.7	5.8	6.4	2.3	1.2	3.0	1.9	0.5
도소매	193.9	4.3	2.7	1.1	2.8	-1.1	-1.7	0.9	-1.8	0.6
운수및창고	78.4	4.2	17.7	17.7	17.3	9.5	8.3	7.9	7.3	-0.9
숙박및음식점	44.4	1.9	16.9	9.8	16.3	-2.7	-4.9	-4.7	-7.2	0.5
정보통신	88.9	12.2	1.7	-1.0	-1.7	-3.8	-5.0	-3.3	-0.8	-0.5
금융및보험	167.4	8.0	8.4	12.5	10.7	7.0	4.5	7.1	7.7	3.5
부동산	38.7	2.3	8.0	6.0	4.1	3.0	3.0	3.4	2.6	-2.2
전문·과학및기술	95.8	2.8	2.0	-0.3	1.8	2.5	2.3	3.9	3.4	-0.6
사업시설관리 등	53.6	2.3	5.2	4.2	5.6	3.5	2.8	2.7	3.2	1.3
교 육	73.5	1.5	1.2	0.3	1.1	0.2	-0.2	1.3	1.9	0.7
보건및사회복지	111.3	5.1	7.2	6.3	5.7	3.5	3.9	3.5	3.9	-1.4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15.4	43.6	26.6	20.8	7.0	-0.1	9.1	-8.4	5.7
협회·수리및개인	24.0	1.9	4.4	5.9	13.8	5.4	3.8	7.5	4.1	-0.3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2.3	-4.7	-4.8	0.6	-1.6	-2.2	1.6	-2.8	-2.1
- ICT서비스업	-	6.2	5.5	2.4	2.2	0.8	0.9	2.2	2.0	-6.1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 용

□ 취업자 수 : 7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0.7% 증가

○ 지난 7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동반 확대된 가운데 SOC·기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하락(1.2% → 0.7%,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감소세(-0.8%)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0.8% → -2.5%)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4개월 연속 둔화(1.6% → 1.3%)
-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2.8% → -2.0%)되고 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세도 3개월 연속 둔화(1.6% → 1.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0.7% → 1.2%),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4.5% → 5.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1% → 1.4%)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7% → 4.8%)과 정보통신업(5.4% → 4.9%)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2.2%)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8%로서 연초(2023년 1월 2.9%) 이후 최고치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전 산 업	27,273	28,089	28,216	27,767	28,693	28,223	28,432	28,835	28,812	28,686
전년동기비	1.4	3.0	2.2	1.5	1.2	1.7	1.3	1.2	1.2	0.7
농림·어업	0.9	4.6	2.0	-1.6	-0.3	2.1	0.8	-0.9	-0.8	-2.5
제 조 업	-0.2	3.1	2.9	-0.8	-1.1	-1.1	-2.1	-0.9	-0.2	-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1	2.1	1.8	2.3	2.0	1.8	1.6	1.3
건 설 업	3.7	1.6	0.2	-1.0	-2.4	-1.0	-1.5	-3.0	-2.8	-2.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2.4	2.2	1.8	2.0	2.0	1.8	1.6	1.3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1.0	1.4	1.3	2.7	1.2	1.5	1.1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0	3.9	2.6	2.9	2.8	2.8	3.0	2.9	2.6	2.2
실업률 (계절조정, %)	3.7	2.9	2.9	2.7	2.6	2.7	2.6	2.5	2.6	2.8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8월 수출 8.4% 감소, 수입 22.8% 감소, 무역수지 약 9억 달러 흑자

○ 지난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8.4% 감소한 519억 달러, 수입도 22.8% 감소한 510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9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하계 휴가 등 계절적 요인과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들의 단가 하락에도 자동차·선박·기계·가전·디스플레이 등 6개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미국·EU·중동 등지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데다, 對중국 수출 감소세도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감소폭이 축소

- 수입은 전년동기비 낮은 유가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감소(-42.0%)하고, 반도체·철강 등의 수입도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감소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4.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22.2%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이 23.4%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40.3% 감소한 약 63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수출	6,444 (25.7)	6,836 (6.1)	1,590 (-10.0)	1,513 (-12.7)	1,558 (-12.0)	495 (-14.4)	521 (-15.4)	542 (-6.0)	503 (-16.4)	519 (-8.4)
수입	6,151 (31.5)	7,314 (18.9)	1,776 (3.1)	1,740 (-2.2)	1,596 (-13.0)	522 (-13.3)	543 (-14.0)	531 (-11.7)	487 (-25.4)	510 (-22.8)
무역수지	293	-478	-186	-227	-38	-27	-22	11	17	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8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자동차·선박·가전 수출 증가, 13대 품목중 6개 품목 수출 동반 증가

○ 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수요 회복과 반도체 업계의 추가 감산 등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스마트폰·태블릿 등 IT기기 판매 약세와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

- **자동차** :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하계 휴가 기간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가 높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SUV 차량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북미·EU 등 주요 시장에서의 국산 브랜드 완성차들의 판매 호조와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 전환
- **선박류** : 2023년 수출 선박들이 선가 상승분이 반영된 수주 계약분이고, 高부가가치 선박(컨테이너선·LNG선)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재차 증가
- **디스플레이** : LCD 생산 감축이 지속되고 있으나, 모바일 OLED 패널 수요 회복과 LTPO 등 프리미엄 모바일, IT제품 및 자동차 분야 OLED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15개월 만에 증가 전환
- **무선통신기기** : 고가형 모델 비중 확대와 사양 개선 등에 따른 평균 수출단가의 상승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8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수요 위축이 이어지면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17개월 연속)
- **철강** : 자동차용 강재 수요 증가와 강관 및 반제품 중심의 수출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름 비수기 영향에 따른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
- **섬유** : 對중국 의류 수출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 아세안과 베트남 등 주요 소싱국에서의 한국産 소재·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수출이 15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제품** : 업계 정기보수 영향에 따른 가동률 하락 및 수출물량 감소, 전년도 고유가 逆기저효과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화학** : 주요 시장인 對중국 수출이 한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유가 하락 및 공급과잉 지속에 따른 시황 약세 등으로 수출이 15개월 연속 감소세
- **일반기계** : 중국의 건설시장 침체 장기화 및 계절적 요인 등 수출 감소 요인

에도, 중남미·중동 등 전략 시장 내 현지 생산공장 신설 등 신규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미국 등 주요국들의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대형가전 및 프리미엄 가전 수요 회복과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요인들에 힘입어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PC 등 전자제품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축소에 따른 공급 과잉 및 단가 하락, 글로벌 SSD 시장에서의逆시장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자동차	24.2	16.4	29.0	43.9	49.0	40.3	49.2	58.3	15.0	28.7
자동차부품	22.2	2.4	-1.1	-3.7	1.0	-1.7	-0.8	5.5	-0.5	5.9
선박류	16.4	-20.9	-22.6	2.0	21.3	59.2	-47.8	98.9	-30.9	35.2
일반기계	4.6	2.0	-3.1	-2.0	5.6	7.7	1.4	7.9	3.2	7.7
철 강	36.9	5.7	-17.6	-15.8	-5.7	-10.9	-8.9	3.1	-10.4	-11.2
석유화학	54.8	-1.4	-25.1	-22.3	-24.2	-23.5	-26.5	-22.2	-24.4	-12.0
석유제품	57.7	64.9	18.0	-0.5	-34.8	-28.9	-34.9	-40.3	-41.9	-35.3
섬 유	14.0	-4.0	-18.7	-15.2	-11.1	-15.0	-15.0	-2.7	-15.4	-10.9
가 전	24.0	-7.4	-24.0	-8.5	-7.5	-10.3	-13.7	3.3	2.5	12.3
무선통신기기	45.9	-10.4	-19.0	-13.4	-20.8	-34.3	-12.1	-12.3	-15.3	-7.8
컴퓨터	24.7	-4.7	-41.0	-61.9	-61.6	-73.3	-57.5	-53.5	-33.4	-54.6
반도체	29.0	1.0	-25.8	-40.0	-34.8	-41.0	-36.2	-28.0	-33.6	-20.6
디스플레이	18.9	-1.1	-20.2	-39.5	-16.5	-29.3	-7.4	-11.1	-4.6	4.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8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부록	엔화 환율 변동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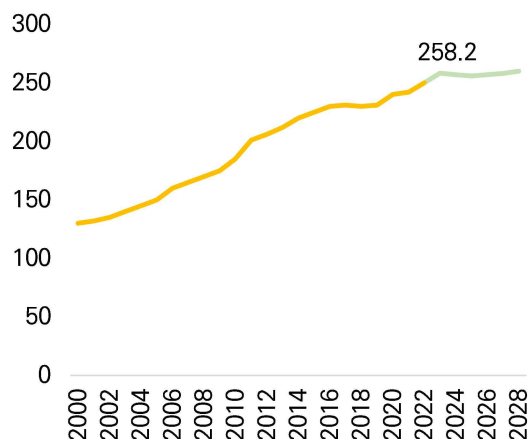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3년 8월)

-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엔화 약세가 최근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이후 원-엔 동조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21년부터 두 환율의 움직임이 방향·크기에 있어 매우 유사한 양상
- 엔화 약세가 우리 수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원화의 동반 약세 및 양국 간 수출 경쟁의 약화로 인한 엔저의 미미한 영향 가능성 등이 혼재하고 있어 엔화 약세의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 필요성이 대두

□ 엔화 약세의 원인

- 우선 미국 등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긴축 기조)과 차별화되는, 일본은행(BOJ)의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으로 미-일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엔화 약세 초래
 -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시키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3년 기준 258.2%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
- 일본의 무역수지가 2021년 이후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축소되면서 엔화 약세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
 - 지난해 일본의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中 경제 부진 등에 따른 수출 둔화와 엔화 약세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입 급증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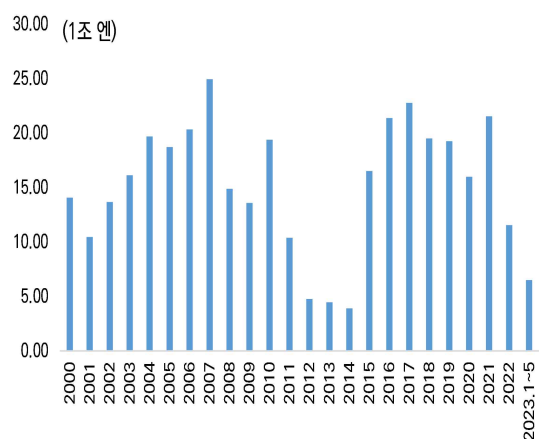
〈 일본 정부부채 비중(% , GDP 대비) 〉



자료 : CEIC.

주 : 2023년 이후는 전망치.

〈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 〉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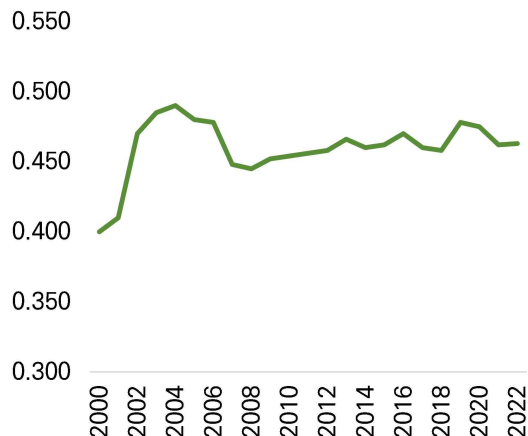
주 : 국제수지 기준.

□ 한·일 수출경합도 추이

- 주요국에서의 한·일 수출경합도는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는 0.486, 중국 시장은 0.414를 기록하면서 2012년 대비 각각 0.013pt, 0.078pt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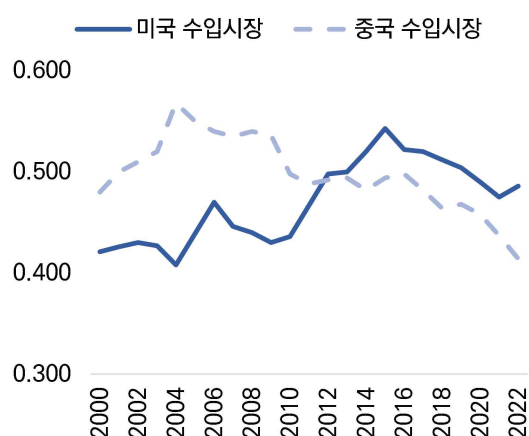
- (중국 시장) 농수산물과 생활용품의 경우, 최근 5년간 수출이 연평균 각각 8.1%와 10.5% 증가하면서 중국 시장 내 쏠산업 경합도 평균치(0.414) 하회
- (미국 시장) 생활용품, 철강·비철금속제품, 기계류 등 수출이 연평균 19.2%, 11.9%, 11.4% 증가하면서 양국 간 수출 경합이 쏠산업 평균치(0.486) 하회

〈 세계 시장에서의 한·일 수출경합도 〉 〈 美·中 시장에서의 한·일 수출경합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바탕으로 저자 계산.

- 주 1) 한국과 일본의 대세계 수출통계로 분석.
(세계 對국별 수입은 품목별 통계 미제공)
2) 일본 수출은 엔/달러 환율 적용, 달러 환산.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바탕으로 저자 계산.

- 주 1) 미국·중국의 對한국·對일본 수입통계로 분석.
2) HS 6단위 전 품목 기준.













































□ 엔화 환율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 엔화 환율 변화의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실증 분석 결과, 엔/달러 환율 10% 상승은 수출단가 0.12% 하락을 통해서 수출물량 0.02%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수출금액을 0.1%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수출물량 함수에 생산능력지표의 대용변수인 RCA지수를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엔/달러 10% 상승 시 수출물량을 0.86%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고, 특히 농수산물(-3.5%)에서 감소 영향이 큰 반면, 반도체(-0.6%)는 미미한 영향

□ 결론 및 시사점

- 원/100엔 환율이 장중 800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엔화 약세 심화로 우리 수출이 받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원-엔 동조화 심화에 따른 원화 동반 약세 및 한-일 수출경합도 둔화로 인해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엔화 약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들의 수출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를 통한 비교우위 개선 노력이 필요
- 또한 소재 및 부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간재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 체결 FTA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도모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9.11일)	(9.12일)	(9.13일)	(9.14일)	(9.15일)
		 7월 산업생산  8월 소비자물가  8월 고용동향	 7월 기계수주  7월 산업생산(수)  ECB 통화정책회의  8월 소매판매  8월 소비자물가	 8월 산업생산  8월 소매판매  8월 고정투자  7월 소매판매(수)  7월 수출입통계  8월 산업생산
(9.18일)	(9.19일)	(9.20일)	(9.21일)	(9.22일)
	 8월 소비자물가(수)  연준 FOMC(-9.20일)	 8월 무역수지(잠)  8월 생산자물가	 BOJ 통화정책회의  8월 경기선행지수	 8월 소비자물가
(9.25일)	(9.26일)	(9.27일)	(9.28일)	(9.29일)
	 9월 소비자신뢰지수  9월 소비자동향조사	 7월 경기선행지수(수정치)  8월 내구재수주(잠)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8월 무역수지(수)  9월 경제체감지수  23.2분기 실질GDP(확정치)	 8월 산업생산(잠)  8월 소매판매(잠)  8월 실업률  9월 소비자물가(예)  8월 개인소비 <div>(10.1일)</div>  9월 수출입통계
(10.2일)	(10.3일)	(10.4일)	(10.5일)	(10.6일)
 7월 실업률  9월 ISM 제조업지수  8월 산업활동동향		 8월 소매판매  9월 ISM 서비스업지수	 8월 무역수지  9월 소비자물가	 8월 경기선행지수(잠정치)  9월 고용보고서